

흉막의 편평상피화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 현 주 · 이 정 희 · 고 경 혁

Squamous Metaplasia of the Pleura

Hyun Ju Kim, M.D., Jeong Hee Lee, M.D. and Gyung Hyuck Ko, M.D.

Department of Pat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e report a case of squamous metaplasia of the pleura observed in a 51 year old man. Squamous metaplasia of serosal surface, and in particular of the pleura, is uncommon. The pathogenesis of squamous metaplasia is obscure, but it may be associated with chronic irritation. (Korean J Pathol 1995; 29: 792~793)

Key Words: Squamous metaplasia, Pleura

장막표면의 편평상피화생(squamous metaplasia)은 흔하지 않으며 특히 흉막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자들은 51세 남자 농흉 환자의 흉막박피술 조직에서 편평상피화생을 1예 관찰하였기에 매우 희귀한 증례로 생각되어 보고하고자 한다.

상기환자는 5개월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객담,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상 30년전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단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다. 내원당시 촬영한 흉부사진상 좌하엽의 상분절에 air-fluid level을 보이는 미만성의 경화(consolidation) 소견을 보였다(Fig. 1).

박피된 흉막은 여러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크기는 14×12×3 cm이었고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조직의 여러군데에서 흰색의 사마귀 모양의 변화가 있는 곳들이 관찰되었다(Fig. 2). 현미경소견상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흉막염이었으나 뜻밖의 광범위한 편평상피화생을 발견하였다. 이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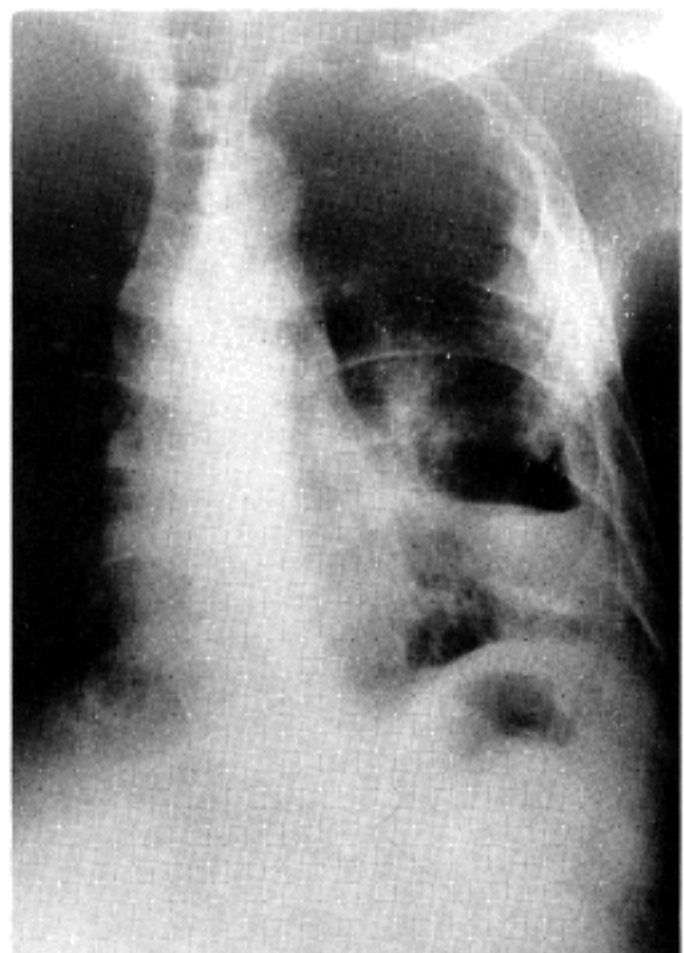


Fig. 1. The chest X-ray shows diffuse air-space consolidation in left lower lung field with air-fluid levels.

접 수 : 1995년 12월 1일, 게재승인 : 1995년 8월 31일

주 소 : 경남 진주시 칠암동 92, 우편번호 660-280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병리과, 김현주



Fig. 2. The pleura is very fibrotic and shows several foci of whitish verrucous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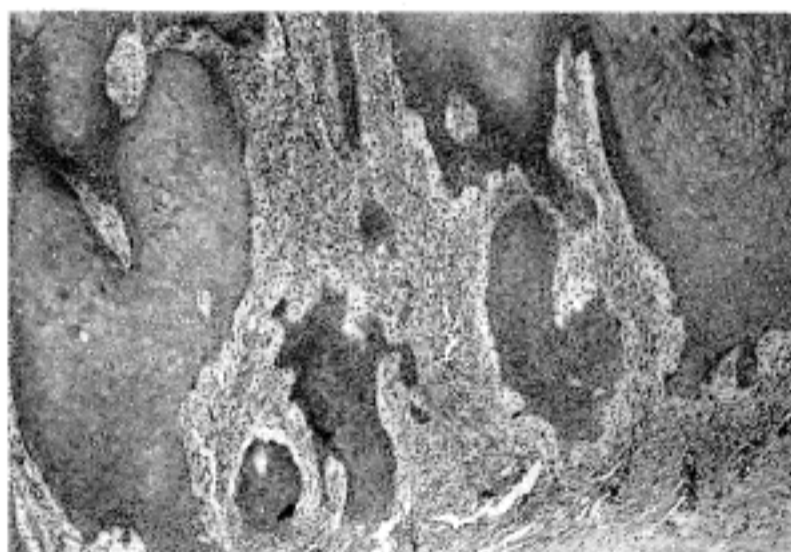


Fig. 3.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lining the pleura shows well developed four epidermal layer and intercellular bridge.

평상피들은 이상각화증(parakeratosis)을 동반한 4층의 표피층을 보이고 있으며 피부 부속기관은 보이지 않았다. 편평상피들은 분화가 좋았고 세포간교(intercellular bridge)가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암종성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Fig. 3).

흉막의 편평상피화생은 매우 드물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저자들이 찾아 본 바에 의하면 흉막의 편평상피화생 8예¹⁻³와 복막에서의 편평상피화생 5예를 찾아 볼 수 있었다⁴. 문헌상에 이미 보고된 8예들은 모두 편평상피화생이 편평상피암종으로 진행된 예들이었다. Willen등¹은 폐결핵으로 기흉 발생 후 흉막에서 종양이 생긴 여섯 예

를 보고하였는데 이들 흉막에서 편평상피화생 소견을 관찰하였다. Tsuji등²은 만성농흉이 생긴 후 암종으로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57년이나 되는 예를 보고한 바 있다. Pranakar등³은 폐농양에 기관지흉막루가 합병된 환자의 흉막에서 생긴 편평상피화생과 암종성 변화를 보고하였는데 그 기간은 5개월로 짧았다. 본 증례에서는 흉막의 광범위한 편평상피화생이 관찰되었으나 어느 곳에서도 암종성 변화는 볼 수 없었다.

복막의 편평상피화생도 매우 드물며 Schatz와 Colgan⁴은 말기 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과 두 차례의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복막에 생긴 편평상피화생을 보고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서 화생성 편평상피는 keratin을 포함하고 있었고 전자현미경 소견상 많은 수의 결합소체(desmosome)가 관찰되었다.

장막의 편평상피화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지속적인 자극에 대한 이차적인 반응으로 생각된다. Crome⁵은 실험적으로 쥐의 흉막강에 강한 자극제인 Sudan III와 Sodium cholate 혼합물을 주입한 후 흉막에 부분적으로 중층의 편평상피가 발생함을 관찰하였다. 장기간의 복막 투석, 폐농양, 폐결핵의 선형 병력이 만성적인 자극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Willen R, Bruce T, Dahlstrom G, Dubiel WT. Squamous epithelial cancer in metaplastic pleura following extrapleural pneumothorax for pulmonary tuberculosis. *Virchows Arch A Pathol Anat and Histol* 1976; 370(3): 225-31.
2. Tsuji Y, Tsubota N, Maeda K, et al. A case of thoracic empyema with bronchopleural fistula existing for fifty-seven years. *Histologic findings of squamous cell carcinoma in resected lung*. *Kyohu Gek* 1984; 37: 768-72.
3. Prabhakar G, Mitchell IM, Guha T, Norton 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pleura following bronchopleural fistula. *Thorax* 1989; 44: 1053-1054.
4. Schatz JE, Colgan TJ. Squamous metaplasia of the peritoneum. *Arch Pathol Lab Med* 1991; 115: 397-399.
5. Crome L. Squamous metaplasia of the peritoneum. *J Pathol Bacteriol* 1945; 62: 61-68.